산업통상자원부	보도자료	

보도시점 2023. 6. 22.(목) 20:30 < 6.23.(금) 조간 > 배포 2023. 6. 22.(목)

세계 최대 연구개발(R&D) 플랫폼, 이제 한국이 주도한다

- 비유럽 국가 최초로 유레카(EUREKA) 이사국 선정

6. 22.(목)(현지 시각) 벨기에 브뤼셀에서 열린 유레카 총회에서 우리나라는 비유럽권 국가로는 처음으로 유레카 이사회*(임기 최대 2년) 회원(멤버)으로 정식 참여하게 되었다.

* 한국, 튀르키예(의장국), 독일, 스페인, 에스토니아, 영국, 체코, 캐나다, 포르투갈, 프랑스 등 10개국
** 우리 측 대표 산업부 산업기술융합정책관, 부대표 한국산업기술진흥원 국제협력센터장

유레카는 세계 최대의 공동 연구개발 플랫폼으로서 유럽 41개국, 우리나라를 포함한 비유럽 6개국 등 총 47개국이 참여하고 있으며, 매년 6~7억 유로(한화 0.8~1조 원) 규모의 신규 연구개발(R&D) 과제(250개 내외)를 착수하는 등 국제공동연구를 활발하게 추진하고 있다.

이번 유레카 이사회 참여는 비유럽 최초의 유레카 가입국이자 아시아 유일의 정회원국인 우리나라의 위상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, 협력 동반자(파트너)로서 그 중요성을 인정받은 것으로 볼 수 있다. 우리나라는 이사회 참여를 통해 유레카 운영 전반에 직접 참여함으로써, 유럽 내 최신 연구개발(R&D) 동향을 파악하여 국내 정책과 연계하는 등 보다 주도적으로 국제 기술협력을 추진할 수 있게 되었다.

* (이사회 역할) ① 연구개발 프로그램 운영방안 논의, ② 유레카 사무국 운영에 대한 관리·감독

차기 이사회의 우리 측 대표인 산업통상자원부 이민우 산업기술융합정책관은 “올해는 한국과 유럽연합(EU)이 수교 60주년을 맞는 해로, 탄소 중립 등 국제적 현안(글로벌 이슈)을 해결하고 첨단기술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한-유럽 간 기술협력의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” 라고 강조하면서, “유레카 이사회 참여를 계기로 한국과 유럽의 산업기술 협력을 더욱 확대할 계획이다” 라고 밝혔다.

담당 부서	산업기술융합정책관 산업기술개발과	책임자	과 장	박용민 (044-203-4530)
		담당자	사무관	고운정 (044-203-4536)

대한민국 정책브리핑 OPEN

참 고 **유레카 개요 및 2023 유레카 총회**

【 유레카 개요 】

- **(배경)** '85년 獨, 佛 주도로 **시장지향적 산업기술개발 공동체 조성**을 목표로 설립되어, 총 47개국이 참여하는 **세계 최대 R&D 네트워크**
  * 참여국 : **(정회원)** EU(27), 非EU(14), 非유럽(2), **(준회원)** 非유럽(4)
  * 참여방식 : 2개국 이상의 산학연이 **자유공모 방식(Bottom-up)**으로 과제 기획
- **(현황) 6,400여개 공동 R&D 과제**에 **21,300여개 산학연**(기업 76%, 대학 13%, 연구소 11%) 참여, **총 386억 유로(약 50조원)** 지원(~'22년)
- **(세부 프로그램)** ①유레카 네트워크(소형과제), ②유레카 클러스터(중대형과제), ③유로스타(중소기업 전용, EC 추가자금 지원)

□ (**한국의 가입 목적**) 글로벌 최대 R&D협력 플랫폼인 유레카를 활용하여 ①기술협력 파트너 확보 및 ②글로벌 시장 진출 토대 마련

□ (**한국의 활동 현황**) '09년 非유럽국 최초 준회원국 가입* 후, 총 216개 과제에 총 2,108억원의 정부자금 지원, 445개 국내 산학연 참여 기회 제공
  * ('09년) 준회원 가입 → ('18년) 파트너 승격 → ('22년) 정회원 승격

  ㅇ 친환경 방식의 세계최대 용량 터보 냉각기술 개발('21년, 매출173억원) 등 유레카 공동R&D를 통해 최근 5년간 796억원의 사업화 매출 창출

【 2023 유레카 총회 】

□ (**개요**) 유레카 의사결정기구로 유레카 운영방안 등 주요안건 심의·의결

□ (**일시/장소**) '23.6.22(목) 09:00~18:00(현지시간) / 벨기에 브뤼셀

□ (**주요안건**) 차기 이사회 구성 승인, 차기 의장국 업무계획 승인 등

□ (**참석자**) 유레카 회원국 국장급, R&D 전문기관 등